

농촌 마을에 청년 활동가 났다

익산에서 농의소득 · 농업인 상담 · 농촌 모니터링 등 3개 분야

익산 청년 활동가들이 농촌지역에서 다양하게 활약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시는 농촌 마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확대하고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력지원센터와 연계해 총 9명의 청년 활동가를 모집했다. 이들은 농의소득, 농업인 상담, 농촌 모니터링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월 200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사업'에



공모해 지난 3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비 9천백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사회적경제 기반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청년 활동가들을 활용하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후계농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청년들이 직접 농촌에서 활동하는 만큼 그 의미도 더욱 크다.

농의소득 활동가는 체험객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마을 체험관광 활동을 홍보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농업인 상담 활동가는 농촌지역 청년들이 직접 마을의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분야 컨설팅과 연계 활동을 통해 마을에 공동체 사업 체계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농촌 모니터링 활동가는 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농가들이 제값을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추후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10일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체력왕선발대회가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군산시 체력왕 선발대회 종료

청소년 남성 정관우군 · 여성 지혜빈양 등 선정

군산시는 지난 10일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실시한 2022년 체력왕선발대회가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된 2022년 체력왕 선발대회는 5,000여명의 참가자 중 8명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체력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날 체력왕 등 총 57명이 시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체력왕 선발대회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층별 1위~3위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오후 5시부터 진행된 체력왕 선발대회 시상식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요체, 식전영양시청, 수상자발표, 시상, 단체 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2년 군산시 체력왕은 △청소년 남성 정관우, 여성 지혜빈, △성인(청년) 남성 김고훈, 여성 서미혜, △성인(중년) 남성 안인호, 여성 김소정, △어르신 남성 송병립, 여성 조월순씨가 차지했다.

특히 어르신 여성 체력왕 조월순씨는 모든 참여자 중 유일하게 570점 만점을 획득해 진정한 체력왕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또한 △체력왕수학교에는 군산고등학교가 선정됐다.

체력왕 수상자 중 한 명은 "군산체력인증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운동하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체력인증센터와 함께 앞으로도 운동하여 건강유지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철저한 방역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로 체력왕 선발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게 되었고, 군산시 체력왕을 직접 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 '청소년, 다(多)이로움' 정책 공유회 · 수료식

제안된 8개 정책 검토 결과 발표... 수용 여부 따라 추진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구성된 익산 '청소년 다(多)이로움 2기'가 제안된 정책과 함께 올해 성과를 공유했다.

'청소년 다(多)이로움 2기'는 1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 결과 공유회와 수료식을 함께 개최하며 올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우선 시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활동을 통해 제안된 8개 정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수용 가능한 정책은 △청소년이 익산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 △영등동 청소년특화거리 조성 △청소년 스트레스 상담 온라인 소통공간 개선이 꼽혔다.

이어 △모험동 어두운 거리 환경 개선 △기후 위기 대응 사회참여활동 활

성화 △유기동물 복지지원 개선은 일부 수용 가능한 정책으로 분류됐다.

이밖에도 △청소년수당 지원은 제도 개선 이후 추진 가능한 정책으로, 시립도서관 청소년 이용 시간 및 공간 확대는 수용 불가한 정책으로 분류됐다.

이후 8개 모듈 총 53명의 청소년들에게 익산시장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각 모듈에서 함께 활동을 협력했던 8명의 지도자들은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시 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청소년이 지역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제안한 8개 모듈은 활동 과정에서 홍보단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사장님들을 만나며 인터뷰하는 '우리 동네 골목대장'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들을 시제로 준비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개최사를 담당했던 정예진 청소년연합회장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의 결과보다는 지금까지 함께한 과정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배워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청소년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근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 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의식과 다양한 역량이 발전되어가는 것을 느낀다"며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책임 있는 지역의 민주 시민으로서 활동들이 더욱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2년 군산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군산시는 농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2022년 군산시 농업인의 행사가 지난 11일 군산 월명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군산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최태인)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 농업인단체 13개 회원 및 가

족,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회원들에 대한 표창 수여와 지역 농업인들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퍼포먼스로 오색 가래떡 커팅식을 진행했다.

시 한우협회·한돈협회 주관으로 폐지되고 시사회를 통해 군산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태인 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대회

사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역할이 곧 대한민국 농업을 책임지는 역할이다. 자부심을 갖고 군산시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산시 농업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단합되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다.

김갑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도 군산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업인들의 한결같은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군산에서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 아파트 시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 간담회

익산시가 시공 중인 아파트 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지난 9일 제일풍경채 아파트 시행·시공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입주예정자와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행사인 수도스공원 개발(주)를 비롯해 시공사 제일건설(주), 설계사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김리사 펌코엔지니어링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시는 사업 관계자와 입주예정자 간 소통을 강조하며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위해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제외한 일반적 인 도서는 공개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입주예정자의 설계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의하고 무리한 요구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득하도록 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응급처치교육 실시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말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매회 신청자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접수가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응급처치교육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붕대 사용법, 심폐소생술,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직접 체험을 통해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군산시, 농업인대학 전문자격증 과정 졸업식

군산시는 제15기 군산시 농업인대학 농업전문자격증 과정 졸업식을 지난 11일 농업인회관에서 졸업생과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유기농업기능사,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지난 3월 4일 시작해 연간 26회, 102시간으로 운영됐다.

교육 내용은 유기농업지식 및 기술습득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양봉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등 실용적인 현장 기술교육을 병행해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국가기술전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졸업식은 김갑준 군산시장의 축사와 김영일 시의회의장, 총동원회장 격려사, 교육생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교육생 졸업 소감을 나누는 시간과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농업인대학 동창회원들과 큰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지회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5기 회장인 김종영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유기농업·양봉반장인 채정연, 김성환씨가 시장상을 수상했으며, 교육기간에 성실하게 참여한 김주홍씨 외 2명이 개근상을 수상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